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대강절 들째 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5. 면류관 가지고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들이기에 고르지 못한 숨결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분주하기는 했으나 지금 우리 손은 비어 있습니다. 빈손이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헛헛증은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햇살처럼 끊임없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 비좁긴 하지만 우리 마음에도 와주십시오. 오셔서 주님의 귀로 세상 소리를 듣고, 주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고,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세상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거짓은 그 껍질까지도 버리고, 참은 온 힘을 다해 붙잡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벧전2:25 인도자

♠ 교 독 문 31. 시편 142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함께

대표기도 I. 노순옥 권사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416. 하나님은 외아들을 다함께

성경봉독 I. 눅15:1-7 인도자

..... II. 시85:8-13 인도자

찬 양 성가대

말 씬 I. 한번에 한 사람씩 김기석 목사

..... II. 영광이 깃든 땅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497.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나르는 하늘의 목도꾼이 되십시오. 하늘 바람을 타고 생명의 춤을 추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 이제는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만 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어둔 세상을 밝히기 위해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도움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기 위해 한 손은 늘 비워놓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4여선교회 주최예배	12월 기도의 밤
말씀 : 장영숙 전도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조윤숙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윤성종 집사

12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창운 고광송 박혜경 노순옥 최영선
	헌금위원	한완식 김용진 김근종 김애경 구명자 백혜숙

우정의 본질로 인한 갈등

영적 거리를 유지하는 일은 내가 어제까지 이해하고 있던 것보다 한층 더 개개인과 깊이 관계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진정한 우정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는 일은 중요하기 이를 데 없다. 조너스와 나는 우리의 우정을 정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둘 다 간접적으로만 언급했으나, 지난 2, 3일간은 우리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나로서는 배신당하거나 속았다는 기분,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여백을 필요로 하는 욕구, 불안과 불신, 두려움과 사랑에 대해서 토로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런 느낌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나는 진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을 친구에게서 기대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나는 배신감을 너무 쉽게 느낀다. 친구가 찾아오지 않거나, 편지가 오지 않거나, 초대가 오지 않거나 하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자존심 상하는 암울한 기분에 젖어들면서 우울해진다. 일단 우울해지면 무고한 몸짓들마저도 스스로 자초한 어둠의 증거들로 해석하려 들고, 그래서 점점 더 그 어둠에서 빠져 나오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스스로 초래한 이 옳지 못한 배신감의 순환고리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그것에 관해 조너스와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너스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은 두 가지였다. 첫째로 조너스는 나로 하여금 내 중심에서 빠져 나오도록 강요했다. 그에게도 생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충족되지 못한 요구와 결함들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나는 깊은 연민과 함께 그를 감싸고 위로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문제로 그를 비판하고 싶은 기분이 없어졌다. 사람들은 흔히, 온갖 관심이 자기에게로 쏠려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상대방을 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줄 알게 되면, 자기에게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진정한 우정이란 둘이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기

에 이른다.

둘째로, 우정은 상대방이 그리스도가 아닌 까닭에 언제나 혼연하게 그를 용서하면서 그리스도께 참된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실감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관계를 중재하지 않으실 때, 그 관계는 자칫하면 요구하고 조정하고 억누르고 수많은 형태의 거부가 난무하는 각축장이 되어버린다. 중재가 없는 우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함으로써 상대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여백을 제공하지 않기 일쑤다. 우정은 가까움과 애정과 지원과 상호격려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성장을 위한 여백과 거리, 서로 다를 수 있는 자유, 고독 역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가 우정의 양쪽 단면들을 두루 부양하자면, 어떤 인간관계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지속력 있는 인정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너스와 나는 우리 우정의 참된 본질을 놓고 씨름하는 과정에서 바울로가 로마인들에게 써 보낸 글들을 읽어보았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느님)결정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만사가 선하게 이루어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그분은 당신이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롬8:28-30)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때, 우리의 상호 관계는 충동적인 성격을 탈피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단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랑의 동참시키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접근하게 된다. 그러기에 참된 우정은 보다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다.

서로에게 이 진리를 부단히 재확인시키는 일은 힘들지만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끊임없는 상호 용서와 하느님의 사랑을 향한 끊임없는 자기 개방은 우리로 하여금 우정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는 수련인 것이다.

— 헨리 뉴엔, <<새벽으로 가는 길>>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뒤에야

고요히 앉아 본 뒤에야

평상시의 마음이 경박했음을 알았네.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

일을 돌아본 뒤에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음을 알았네.

문을 닫아 건 뒤에야

앞서의 사괘이 지나쳤음을 알았네.

욕심을 줄인 뒤에야

이전의 잘못이 많았음을 알았네.

마음을 쏟은 뒤에야

평소에 마음씀이 각박했음을 알았네.

— 중국 명나라 문인 진계유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정오 장민숙 박시내 박옥식 방현복 한완식 임정자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이한림 김명희 안종일
 정현주 김준호 곽혜자 임승동 백혜숙 이광용 형인순 박성수 김애경
 백승민 김용길 최영혜 방 민 김종훈 안경숙 김시영 김희진 박홍재
 홍순구 안홍숙 임 영 정경례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이지훈 오현정 조항범 이동천 황경순 최주환 문복순
 왕수명 이소순 서정순 전영자 이경남 이희균 김영한 백혜성 박범희
 박미영 정원석 김현영 이재구 황선희

감사헌금:

김철수 유영남 정원석 김현영 정채연 정채인 권채영 박금희 강승모
 김 진 무명1

생일감사헌금: 임미삼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교 회	김 애 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김 윤 수	노 순 옥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소 순	이 재 문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문 영 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백 묘 현	문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홍 복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기 분	최 희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안 길 상	최 종 원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김 희 우	임 수 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수 진	안 경 숙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방 극 숙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최 영 혜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제4여선교회 주최예배로 모입니다.
2. **공천위원회** : 오늘 오후 집회 후에 담임목사실에서 모입니다.
3. **당회** : 다음 주일(11일) 오후 3시에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당회원은 세례를 받고 입교한 교인 전원입니다.
4. **기도의 밤** : 12월 7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12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영적 해신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5. **새벽기도회** :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월)부터 12월 25일(일)까지 석 주 동안 열립니다.
6. **봉사** : 종묘 급식봉사가 7일(수) 오전 11시 15분부터 실시됩니다.
7. **목요성서모임** : 목요성서모임이 ‘마태복음’ 공부를 마치고 12월 15일부터 ‘전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풍요로워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주소록** : 2006년도 주소록을 작성중입니다. 금년에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은 알려주십시오(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9. **신앙실천** :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맞을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두 번씩 관상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 식당 봉사 : 다메섹 속

* 헌화 : 임창선 권사 (남편 추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